

“2026 여수섬박람회 성공으로 세계 속 미항 거듭나겠다”

정기명 여수시장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



행사장 기반 시설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 소통 행정 강화... 3조3400억 투자 유치·1090억 공모사업 선정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고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해 진정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실현하겠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민선 8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황금 같은 기회가 또 한 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섬박람회 성공으로 여수가 남해안의 거점도시, 이름 그대로의 세계 속의 미항 여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29일 오전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주요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섬박람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섬박람회의 밑그림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행사장 기반 시설 설치와 전시관 조성 등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주 여건, 산업경제, 교육보건복지, 문화관광, 기후환경 등 5개 분야의 성과와 앞으로 남은 3년의 시정 운영을 위한 10대 핵심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 “민선 8기 여수시의 최우선 기조는 소통과 화합”이라며 “취임 이후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였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여수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소통 행정을 통해 57건의 기관 표창과 7억8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확보했고, 총 6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10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략적 투자유치를 벌여 8개 기업과 3조3466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고 153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성과도 제시했다.

또 2026섬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확정과 주행사장 기본조성 공사를 시작하는 등 성공 개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섬박람회의 밑그림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행사장 기반 시설 설치와 전시관 조성 등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며 “반드시 성공 개최해 섬은 물론 여수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 실현을 통한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과 여수 브랜드 제고를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면서 “남해안을 가로지르는 일레븐(11) 브릿지는 남해안 관광벨트의 백미가,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은 남해안 관광벨트 완성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만 르네상스’를 통한 새로운 미래 도약도 꿈꾼다.

시는 현재 용역 중인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남해안 관광벨트의 한 줄기이자 여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수만에 대한 보존과 개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여수사건 진실규명 및 평화공원 유치’, ‘여수문화예술재단·시립박물관, 미술관 건립’ 등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통합청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행안부와 절차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만큼 계속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태도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주차장 조제 등 양상화 문제는 주민발의안이 여수시의 회에 접수된 만큼 의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수시의 견해를 전달하겠다고 의회에 공을 남겼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의 모든 것을 여수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위대한 도전에 여수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지리산리조트와 100억 규모 가족호텔 설립 협약

KT지리산수련관 매입...골프연습장·수영장·야영장 갖춰 9월 개장

구례군과 지리산리조트가 지난 30일 구례군청 군수실에서 100억원 규모의 가족호텔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에 따르면 투자협약은 김순호 구례군수, 김수철 구례군의회 부의장, 지리산리조트 양철진 대표이사, 박영래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지리산리조트는 100억 원을 투자해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구례군 광의면 소재의 KT지리산수련관을 매입하고, 골프연습장, 수영장, 야영장 등을 갖춘 가족호텔로 탈바꿈시켜 올해 9월 개장할 계획이다.

가족호텔 등이 운영을 시작하면 화엄사와 지리산 역사문화관 등과 연계한 지역 대표 숙박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족호텔 운영에 따라 30여 명의 신규 일자리

가 창출되고 화엄사 권역의 체류형 관광객 증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투자협약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철진 지리산리조트 대표이사는 “지역과 함께 하는 가족호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민 우선 채용과 농특산물 이용,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등 8개 기관이 지난 29일 ‘주암댐 상류 페플라스틱 문제해결 업사이클링 순환체계 조성 프로젝트 킥오프데이·포럼 개최’를 열고 탄소중립 공동 실천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순천정원박람회 5백만 돌파 9일 기념행사

오천그린광장 상설무대...자동차 등 경품도 푸짐

500만 관람객을 넘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애초 이달 1일 계획됐던 기념행사를 비 예보 탓에 오는 9일로 미뤘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 30분께 오천그린광장 상설무대에서 박람회 관람객 500만명 돌파 축하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축하 행사는 행사장을 찾은 누구나 입장료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조직위는 공연 등 편한 관람을 위해 개인 돗자리 등을 가지고 올 것을 권유했다.

이날 조직위는 현장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나눠주고, 경품 추첨, 뮤지컬 갈라쇼 등 다채롭게 행사를 마련했다.

관람객 500만 돌파를 기념한 최고 경품은 자동차

(아반떼 모던)이다.

순천만국가정원 동문·서문·남문과 순천만습지, 오천그린광장에 마련된 경품함에 미리 응모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1명을 추첨한다.

이외 숙박형 체험시설 ‘월랑계’ 숙박권, 자전거, 제습기, 박람회 입장권, 사우나 이용권 등 경품을 갖췄다.

현장 경품은 오천그린광장에 지난 24일부터 설치한 경품함에 응모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9일 행사에 참여해야만 경품을 받아갈 수 있다.

경품 추첨 이전에는 이동식 타악 단체 ‘리퍼커션’이 흥을 돋운다.

추첨 이후 오후 8시께는 가수 바다의 유명 뮤지컬의 삽입곡을 감상할 수 있는 뮤지컬 갈라쇼 막이 오른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달리는 신문고’ 운영

고흥군이 오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고 현장 협의 및 중재 등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 분야는 행정·문화·교육과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교통·도로 등 20개 분야로 전문 조사관이 직접 현장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심도 있는 상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 예약제’를 실시하며, 접수된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민원요지 등을 사전검토 후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고흥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보성군민들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가 지난 29일 주암댐 상류에 버려진 페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이날 광주 지역사립복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행사는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와 전남지역 문제해결플랫폼이 함께 열었다.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전략 과제인 ‘주암댐 부유물물 부락해’를 진행하고 있는 의제실행단과 협업기관 소속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 기관에는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순천 YMCA,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에코솔루션협동조합, 목포대학교 링크3.0사업단, 모두예술협동조합 8개 기관이 포함됐다.

에코솔루션협동조합과 수자원공사는 주민 주도 ‘주암댐 부유물물 부락해’ 사례를 발표했다.

주암댐 인근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주암댐 상류를 깨끗이 하고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발표 뒤에는 실행 의제 활성화 방안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김주희 목포대학교 LINC3.0사업단 팀장과 김대용 해솔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윤아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상현 (주)아이웍스 대표, 류용우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창준 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장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별 협력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주암댐 상류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상생을 구축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